

照明 實錄 太宗과 世子廢立

(제 6 회)

〈實錄研究家·人間文化財〉 李 在 範

13. 양광(佯狂)의 진부(眞否)

양녕(讓寧)이 진정 세자의 위(位)를 버리기 위하여 거짓 미친체 하였던가?

실록에는 양녕이 광패(狂悖)하다는 기록이 많다. 그리고 또한 폐세자의 교서에서도 태종은 「네가 일찌기 세자의 위를 사위코져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녕 또한 『내 일찌기 사위코져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고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볼때, 양녕은 한때 세자의 위를 사위(辭位)코져 하였다는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겉으로만 볼때, 양녕이 세자위를 버리기 위하여 거짓 미친체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전후사정을 살펴볼때, 그렇게 단정할수가 없다.

양녕은 그 기질이 부왕인 태종과 조왕인 태조의 영웅성(英雄性)을 많이 이어받은 호협한 영웅의 형이었다. 그러므로 작은 조선나라의 장차 통치문제 따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영웅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주색풍류(酒色風流)에 한때 탐닉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예

를 몇가지 들어보자.

첫째, 그는 모습이 부왕인 태종과 많이 닮았다. 태종 8년에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명제(明帝)는 양녕을 보고『너의 모습이 너의 부왕과 흡사하다』하였다. 모습이 닮으면 성격과 기질도 닮는다.

둘째, 그는 글씨 쓰기를 좋아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경회루(慶會樓)의 편액(扁額)을 쓸 만큼 큰글씨에 능하였음은 그 기질이 호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14세의 소년으로 명나라 조정에서 꺼리낌없이 자리를 마련하라고 항의를 하였으니 그 대범한 사람됨이 잘 나타나 있다.

넷째, 세자위를 잃게된 항의서한에서 「한(漢)나라 고조는 산동에 거할때에 탐재호색을 하였어도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다」라는 귀절은 그가 생각하고있었던 제왕관(帝王觀)을 무엇보다도 잘나타내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한고조로 자처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어찌하여 신의 장차의 큰 효도를 헤아리지 못하오이까」라고도 썼다. 왕세자의 큰 효도는 곧 왕실을 반석같이 튼튼하게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것을 뜻함이 아니

던가. 그는 나름대로의 경륜을 가지고 있었는것 같다.

또한 그가 일찌기 태종17년에 종묘와 부왕에게 자신(自新)을 맹서한 사실을 볼때, 세자의 위를 버리고자 거짓미친체 하였다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다. 실록의「狂悖」라는 뜻도 그 행동이 한나라의 세자답게 모범적이 되지못하고 심히 거칠다는 뜻으로 이해 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두고 양광(伴狂)으로 해석함은 옳지 못하다 할것이다.

제왕가에서 제왕이나 세자의 위에서 쫓겨 난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것이다. 양녕이 폐세자교서를 받고 받은 말이 『고금천하에 나와같은자(폐세자)가 일찌기 살아남은예가 없었다(古今天下 爲子有臣而 如我者 未有生存於世也).』라고 하였다. 그러한 실례는 후일 세조(世祖)에게 밀려난 단종(端宗)이 끝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있지 않은가. 사실 양녕이 광주로 내친뒤에 그를 없이하려는 수많은 상소를 물리치고, 그의 여생을 편히 보존한 것은 세종과 같은 위대한 임금이었기에 가능하였던것이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살펴볼때, 양녕이 한때 타고난 호기에 따라 주색에 탐닉하였다 하더라도 세자의 위를 진심으로 버리고져 양광을 하였다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당시 양녕과 충녕(세종)과의 관계를 살펴 보자. 세종이 양녕의 뒤를 이어 왕세자가 되었다가, 왕위에 오른뒤에는 형인 양녕을 감싸고 두둔하면서 편안히 살아가도록 깊은 우애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 어릴때에는 적지않은 의견충돌이 있었다. 호방스러운 성격의 양녕이 세자의 위에 있을때에 꺼리낌없는 행동을 하는것이 성격이 차분하고 군자형인 충녕에게는 몹시 마땅치않게 느껴졌다. 충녕은 가

꿈 형인 양녕에게 충고를 하곤했다. 그가 세자인 형을 질시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하여 훌륭한 후계자를 갈망하는 부왕의 간절한 소망에 비추어 볼때 양녕의 방종스러운 행동이 크게 걱정스러웠던것이였다. 그러나 양녕은 그러한 충녕의 충고에 대하여 좋게 받아드리지 아니했다. 여하튼 두 형제간에는 수시로 충고와 반발의식같은 상충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다음에 그 예를 들어보자.

① 16년 6월 20일. 인덕궁(仁德宮)에서는 질탕한 연회가 베풀어졌다. 세자인 제는 기녀 칠점생(七點生)과 어울려 그를 희롱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그를본 충녕대군은 심히 못마땅한듯, 세자 제에게 핀잔을 주었다. 세자 제는 크게 노했다. 그후 두 형제는 서로 심히 꺼리며 어울리지도 아니했다. 태종은 그들의 불화를 염려한 나머지, 행여 불상사라도 나지않을까 하여 대군들이 거느리고 다니는 시종(侍從)의 수를 줄이도록 조치했다(世子心怒 厥後 世子與 忠寧大君道不同 心頗忌之 上慮之乃減 諸大君 侍從人數).

② 그해 9월 19일. 흥덕사(興德寺)에서는 태종의 모후(母后)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기신제가 있었다. 각왕자들은 이제향에 참여하기 위하여 흥덕사에 모였다. 제사가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다. 모두가 몸을 가다듬고 경건히 앉아 있었다. 그것이 제사에 임하는 제계(齋戒)의 법도이다. 그러나 세자인 제는 그러하지를 않았다. 시종들과 바둑판을 벌여놓고 있었다. 충녕대군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세자 제에게 충고를 했다.

『존귀한 세자의 지체로서 평일에도 아랫무리들과 소희(小戲)를 삼가야 마땅하옵신데, 하물며 오늘과 같은 제향날에 이렇듯 처신을 하

옵시니 법도에 어긋남이 심한가 하오이다。(儲副之尊 下與儉小爲戲 己爲不可 況在諱晨乎)』
 제는 크게 노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너는 관음전(觀音殿)에 가서 잠이나 자는 것이 좋으리라。(汝可就 觀音殿 好睡)』

③ 18년 5월 11일. 어리사건이 다시 터지자 세자 제는 부왕의 노여움을 사서 부왕이 있는 개경으로부터 한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제가 마산역(馬山驛)가까이에 이르렀을 무렵 마침 죽은 성녕대군(誠寧大君)의 불사(佛事)를 마치고 돌아오는 충녕대군과 마주쳤다. 제는 충녕을 보자 크게 노했다.

『어리의 일은 네가 부왕께 고자질한 것이였다。(於里事 必汝啓之)』

충녕은 들은채도 하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

이러한 충녕대군과의 불화를 살피 볼때, 양녕이 충녕을 위하여 그에게 세자위를 넘겨주고져 양광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한때 세자의 위를 사위하겠다 한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 충녕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부왕에 대한 일시적 반발이라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여겨진다.

때때로 내리는 부왕의 질책, 영명한 충녕대군에 비하여 스스로 느끼는 열등의식, 생래적으로 타고난 야성적 호방한 성격, 부왕의 충녕에 대

한 편애.

그러한 심정은 제가 세자폐위 교서를 받고 토론한 경우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다.

『지난날 세자위를 사위(辭位)코져 하였음은 부왕께서 충녕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양녕과 같은 인물이 왜 세자의 위에서 쫓겨 갔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양녕은 태종이 기대하였던 그런 형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피로써 다진 창업의 기반을 물려주고져 할때, 이제는 양녕과 같은 사나운 영웅이 아니라, 섬세한 수완으로써 하나 하나 왕국의 제도를 창제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이나라 국민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그러한 착하고 어진 후계자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항상 세자인 제에게 이르기를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학업에 열중하도록 훈계를 하였으며, 주색과 잡기를 크게 경계하였다. 그러나 제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다. 일국의 제왕이 될 몸이 장차 선치(善治)를 하면 되었지 몇몇 기첩들과 한때 풍류를 즐기면 어떠냐 하는 마음이 잠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제는 그시대에 맞지 않는 영웅성 때문에 항상 부왕인 태종과 갈등을 빚었으며, 마침내 부왕에 대한 항의서한 사건까지 발전하여 급기야 비운의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